

# 동아시아 서머스쿨 2024 모집 요강

신청 마감: 2024년 6월 28일(금)



## 머리글

최근에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함에 따라 202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출입국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각국을 왕래하는 국제 교류의 기회가 사라졌지만, 작년에는 4년 만에 해외에서도 수강생을 초청해서 ‘동아시아 서머스쿨 2023’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현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2011년부터 이어 오고 있는 ‘동아시아 서머스쿨’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상황 등의 교양 과목을 공부하고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상호 교류를 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감을 높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시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24

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

East Asia Summer School



나라현 지사  
동아시아 서머스쿨 명예학장  
야마시타 마코토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동아시아 서머스쿨’은 글로벌 사회 속에서 동아시아를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의 육성과 교류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으로 12번째를 맞이합니다.

이 서머스쿨의 커리큘럼은 역사와 문화, 관광, 국제 문제 등 다양하며, 각 분야에 정통한 강사진의 강의 외에도, 나라현의 문화유산 등을 돌아보는 시찰 연수와 수강생의 보고서 작성과 성과 발표 등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해서 활발한 지적 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고 미래 동아시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현립대학 학장  
동아시아 서머스쿨 학장  
오쿠도 마사미

나라현립대학을 중심으로 나라현의 지역과 시설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동아시아 서머스쿨은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의 젊은이들이 나라에 모여 역사, 문화, 관광, 국제 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중단된 적도 있지만, 작년에는 4년 만에 해외에서도 수강생을 초청하여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의 수도였던 시대, 거리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생활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만나고, 배우고, 체험하는 2주간은 수강생 여러분에게 국가 및 지역의 차이를 초월한 이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나라에서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8월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 프로그램의 개요

## (1) 주최

나라현/나라현립대학

## (2) 목적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참가하는 수강생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학습합니다.

### 【학습 목표】

**동아시아의 '공통점'과 관계성'을 인식하고 폭넓은 교양 과목을 학습한다**

## (3) 프로그램 기간

2024년 8월 18일(일) ~ 8월 30일(금)의 13일간

## (4) 수강 대상

일본 국내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방 정부 직원(대략 40세 이하)

## (5) 주요 커리큘럼(스케줄은 오른쪽 참조)

### 강의

(90분 × 15회)

역사, 문화, 관광, 국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모든 수강생들이 유명 강사진의 강의를 청강하여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그룹 토론과 성과 발표를 진행합니다.

### 그룹 토론

(60분 × 5회)

하루의 강의를 끝난 후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수강생(소그룹)끼리 토론을 벌이고 발표를 합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학습하면서 교류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 시찰, 체험학습 가정 방문

(2일)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 나라현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나라현 시설의 시찰과 체험학습, 일반 가정의 협조를 받아 식사 등의 교류를 갖는 가정 방문을 실시합니다.

### 성과 발표

(프레젠테이션)

소그룹별로 주제를 설정하여 수강 기간 중에 토론한 내용을 마지막 날에 성과로 발표합니다. 발표한 성과물 등은 기록물에도 게재합니다.

## (6) 참가 비용

무료. 기간 중의 숙박비(조식 포함), 중식비(※휴식일 등은 제외), 강의나 시찰 및 체험학습 등의 비용은 주최자가 부담합니다. 단, 다음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거주지부터 개최 장소까지(해외 수강생의 경우는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국내 수강생의 경우는 나라 시내의 집합 장소까지)의 경비(왕복)
- 기간 중의 석식비, 휴식일의 중식비, 개인적인 식비 및 교통비, 기념품 구입비 등

## (7) 유의사항

- ①기간 중에 도난, 분실,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주최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복장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을 삼가는 등, 연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 ③기간 중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물을 제작하는 등 대학 홍보에 활용합니다.
- ④주최자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해 본 사업을 중단하거나 프로그램의 일정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프로그램

1일차	8/18(일)	일본 입국 및 나라현 도착			집합	오리엔테이션 1	숙박
2일차	8/19(월)	오리엔테이션 2	중식	오리엔테이션 3, 4	개강식	환영 파티	숙박
3일차	8/20(화)	강의	강의	중식	강의	그룹 토론	성과 발표물 작성
4일차	8/21(수)	시찰 및 체험학습		중식	시찰 및 체험학습		숙박
5일차	8/22(목)	강의	강의	중식	강의	그룹 토론	성과 발표물 작성
6일차	8/23(금)	강의	강의	중식	강의	그룹 토론	성과 발표물 작성
7일차	8/24(토)	휴식일					숙박
8일차	8/25(일)	시찰 및 체험학습		중식	가정 방문		숙박
9일차	8/26(월)	강의	강의	중식	강의	그룹 토론	성과 발표물 작성
10일차	8/27(화)	강의	강의	중식	강의	그룹 토론	성과 발표물 작성
11일차	8/28(수)	성과 발표물 작성		중식	성과 발표물 작성		숙박
12일차	8/29(목)	성과 발표 여행 연습		중식	성과 발표회	리뷰 수료식	송별 파티
13일차	8/30(금)	해산(복귀)					



시찰 및 체험학습 모습

### 3. 응모 절차

주최자가 모집을 의뢰한 대학이나 지방 정부를 통해 나라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으로 아래의 응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서식 파일 첨부)로 제출하십시오.

#### (1) 모집 인원

약 45명. 수강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주최자가 조정합니다.

#### (2) 응모 자격

일본 국내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방 정부 직원(대략 40세 이하)으로 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주최자가 모집을 의뢰한 대학 또는 지방 정부의 추천이 있을 것.
- ② 대학 수준의 일본어 강의와 그룹 토론, 자료 작성 등에 대응이 가능할 것.  
(번역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구두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 ③ 커리큘럼의 모든 일정에 참가할 수 있을 것.

#### (3) 응모 방법

아래의 응모 서류 ① 및 ②를 일본어로 기재해서 기한 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십시오.

##### 【응모 서류】

- ①주최자가 모집을 의뢰한 대학 또는 지방 정부의 추천서(양식 1)-Excel
  - ②동아시아 서머스쿨 수강생 후보자 기입 용지(양식 2)-Excel
- ※제출 서류는 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4) 신청 마감일

**2024년 6월 28일(금) ※필착**

※사무국에서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이메일로 수령 확인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 (5) 전형 결과(수강 결정 통지)

2024년 7월 초순까지 추천받은 대학 또는 지방 정부로 수강 가부를 통지(서면 또는 이메일)해 드립니다.

※연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강이 결정된 후에는 참가를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응모 서류 송부처, 문의처

나라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  
 (우)630-8258 일본 나라현 나라시 후나하시초 10번지  
 전화: 0742-22-4978 이메일: [summer-school@narapu.ac.jp](mailto:summer-school@narapu.ac.jp)  
 근무시간: 월~금 9:00~12:00, 13:00~17:00

#### (7)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및 취급

수집한 응모자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또, 수집한 개인 정보는 주최자가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 수강자 전형 및 사업 실시를 위하여
-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연락 등을 위하여
-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관련된 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 ‘동아시아 서머스쿨 2024’ 강사 소개

※가나 순



## 【교통 및 관광】

**이와무라 사토시(일반재단법인 친환경차량보급기구 회장,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운수성(당시) 입직 후 항공국장, 운수정책국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등을 거쳐 2004년 국토교통성 사무차관, 2005년 퇴임. 그 후, 재단법인 항만근대화촉진협의회 회장, 게이오기주쿠대학 환경정보학부 교수,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주)손해보험재팬 고문, 간사이전력(주) 고문, 간사이국제공항(주) 이사 회장을 역임. 현재 일반재단법인 친환경차량보급기구 회장, 공익재단법인 교통이콜로지모빌리티재단 회장 등을 겸임.



## 【문화】

**오카모토 아키오(전 가스가타이샤 부신관, 방송대학 객원교수,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1954년 나라현 출생. 고쿠가쿠인대학 문학부 신도과 졸업. 가스가타이샤에 봉직. 가스가타이샤에서는 특히 옛 제례 의식 부흥에 노력했고, 정례 궁중 가구라나 가스가와카미야 온마쓰리 오타비쇼사이 등의 근거와 옛 신찬 등 고대 의식의 부흥, 신사에 전해지는 가구라의 폐절곡 복원, 산준소가쿠의 부흥 등 많은 제례 행사를 정확하게 복원하고, 신사 정기 개축 시에는 메이지 유신 시기에 사라진 의식을 1995년의 제59차 정기 개축을 통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복원시켰다. 2016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야마토 고물 산책’(2000년), ‘야마토 고물 습유’(2010년), ‘신이 주신 도시락’(2015년), ‘야마토의 보물’(2016년), ‘도가 입문’(2018년), ‘일본인이여, 이렇게 되어라’(2020년) 등



## 【관광 및 정보】

**오규도 마사미(나라현립대학 학장)**

오사카교육대학 졸업. 박사(학술). 고등학교 교사(이과/물리), 효고현립대학 니시하리마 천문대 연구원, 미사토 천문대 소장, 와카야마대학 학생자율창조과학센터 교수, 동 관광학부 교수, 학부장, 이사 및 부학장 등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나라현립대학 학장으로 재직. 천문학과 정보공학과 관광학을 융합한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과학기술 분야의 문부과학대신 표창. 연구 성과의 사회 적용 사례로서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의 현장감 넘치는 위성 생중계를 실현. 2023년 요론지마 섬에서 진행된 우주 관찰 여행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의 우수 시책 100선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 등>

‘인터넷 천문대 미사토에서 세계로’(1999)



## 【사상】

**오구라 기조(교토대학대학원 교수)**

도쿄대학 문학부 동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 학점 취득. 전문은 동아시아 철학, 한국 사상, 한국문화사학회 등. NHK TV와 라디오 ‘한글 강좌’ 강사, 외무성 ‘한일 우정의 해 2005’ 실행위원, ‘한일 교류 축제’ 실행위원, ‘한일 문화 교류 회의’ 위원 등을 역임.

<주요 저서 등>

‘역사 인식의 극복’(2005년), ‘창조하는 동아시아 문명과 문화, 그리고 허무주의’(2011년),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문명>과 <문화>를 통한 고찰’(2012년), ‘새로운 논어’(2013년), ‘한국 사상 전집’(2017년), ‘군도의 문명과 대륙의 문명’(2020년)



## 【문화 정책】

**사토 데이이치(오비린대학 특별 초빙교수,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1941년 출생.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박사(정책연구대학원대학). 문부성(당시) 입직 후 문화청 차장, 학술국제국장, 대신관방장 등을 거쳐 1997년에 문부 사무차관, 2000년 퇴직. 그 후, 같은 해에 일본 학술진흥회 이사장, 2003년 일본 정부 유네스코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2007년 도쿄 국립 박물관 관장 등을 거쳐 2009년부터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참의 및 객원교수를 역임.

<주요 저서 등>

‘문화와 국제법-세계유산 협약 및 무형유산 협약과 문화 다양성 협약’(2008년)

**【환경】**

**다나카 마사루(교토대학 명예교수, 모네숲·마을·바다연구소 소장)**



교토대학대학원 농학연구과 박사 과정 수료. 세이카이구수산연구소 연구원, 교토대학대학원 농학연구과 교수, 교토대학 현장과학교육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 2011년 5월부터 동일본 대지진 부흥에 관한 '게센누마 모네담 조사'를 이끌었고, 2014년 4월부터 모네숲·마을·바다연구소 소장에 취임. 40년간의 치어 생태 연구를 바탕으로 2003년에는 숲에서부터 바다에 이르는 다양한 연관성을 밝혀내 자연과 사회의 재생으로 이어지는 통합 학문 '숲·마을·바다 연환학'을 제창. 관련성의 가치관 재생을 바라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모토 아래 '숲·마을·바다를 연결하는 포럼'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주요 저서 등>

'숲·마을·바다 연환학의 길'(2008년), '숲·마을·바다 연환학'(2011년), '숲·마을·바다 연환에 의한 아리아케해 재생의 길'(2014년), '숲·마을·바다를 연결한다(1) 생명의 고향, 바다와 함께 살다'(2017년), '숲·마을·바다를 연결한다(2) 여성이 개척하는 생명의 고향, 바다와 함께 살다'(2017년), '생명 문명의 시대'(2018년), '숲·마을·바다를 연결한다(3) 생명이 반짝이는 아리아케해: 분단과 대립을 넘어 협동의 미래를 선택'(2019년), '숲·마을·바다를 연결한다(4) 생명의 순환 숲·마을·바다의 현장에서: 미래 세대에 보내는 메시지 72'(2022년), '장어와 한마음으로 미래를 개척한다'(2024년)

**【역사】**

**다나베 이쿠오(공익재단법인 간코지문화재연구소 소장)**



케이오기주쿠대학 문학부 졸업, 교토대학대학원 석사 과정 중퇴, 문화청 미술공예과 주임 문화재조사관, 도쿄 국립 박물관 학예부 고고과장,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헤이조궁터발굴조사부장,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이사, 나라문화재연구소 소장, 나라현 특별고문, 나라현립대학 특임교수, 공익재단법인 오사카부문화재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 2015년 가을 서훈 때 서보소수장을 수상.

<주요 저서 등>

'역사 고고학 대사전'(2007년), '고대 도시 2 헤이조쿄의 시대'(2010년) 등

**【나라】**

**쓰쓰이 간쇼(도다이지 장로, 도다이지 상원 원주)**



1946년 나라현 출생. 1955년 도다이지에 입문하여 고난대학 문학부 사회학과 졸업. 2007년에 도다이지 집사장 및 화엄종 종무장, 2013년에 화엄종 관장 및 제221세 도다이지 별당에 취임한 후, 2019년 5월부터 현직. 독자적인 관점으로 화엄경의 가르침과 대불에 관련된 일화를 설명하는 강연도 진행.

<주요 저서 등>

'좀 더 알고 싶은 도다이지의 역사'(2010년),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조언(현재를 사는 시리즈)'(2014년) 등

**【나라】**

**나카지마 게이스케(나라현립대학 유라시아연구센터 부소장/특임 준교수)**



오사카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졸업. 나라현청 입직 후 현정 기본 방침 '여유' 있는 나라현 만들기, '나라현 신 종합 계획', 나라현 관광 전략 '야마토지 교류 기회 창출 사업', 헤이조 천도 1300년 기념 사업 등을 담당. 신 긴키 창출 스바루 추진위원회 조사역(1998-1999), 교토 사가예술대학 비상근 강사(2003-2008 겸직), 경제산업성 차관 및 청년 프로젝트 전문가 위원(2016-2017). 2017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관광세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지역 경영의 관점에서 본 헤이조 천도 1300년 기념 사업'(2008년), '또 하나의 관광자원론'(2014년), '이노우에 엔료의 기묘한 민족주의'(2017년), '논집 이노우에 엔료' 공저(2019년), '나라현립대학 유라시아연구센터 학술 총서 1~4'(2022년), '동 Series 2'(2023년), 'Series 3'(2024년) 등

**【지역 경제 인구 문제】**

**모타니 고스케((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일본정책투자은행 지역조사부 특임고문)**



1964년 야마구치현 출생. 헤이세이 합병 전의 3,200개 모든 시정촌과 해외 133개국을 자비로 방문하여 지역 특성을 다면적으로 파악. 지역 진흥, 인구 성숙 문제, 관광 진흥 등에 관해 연구, 저술 및 강연. 2012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디스플레이션의 정체'(2010년), '사토야마 자본주의'(2013년), '세계 거리 지정학 NEXT'(2019년), '도쿄 탈출론'(2020년), '진화하는 사토야마 자본주의'(2020년), '일본이 나아가길 ~성장이란 무엇이었는가?'(2023년, 요로 다케시 씨와의 대답) 등

**【사상】**



**야부우치 사토시(도쿄예술대학 명예교수, 나라 현립 미술관 관장,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뷰티&웰니스전문직대학 부학장 겸 교수)**

1953년 오사카부 출생. 조각가.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조각과 졸업. 동 대학원 미술연구과 수료. 동 대학원 보존복원기술연구실에서 불상의 고전 기법과 복원 기술을 연구.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도쿄 예술대학대학원 문화재보존학 교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동 대학 부학장. 재임 중 국보 및 중요 문화재 등 약 100점의 불상 복원과 조사 연구에 참여. 조각가로서는 불교적 세계관과 동양적 자연관을 '동자'의 캐릭터로 표현. 목각 작품 외에 청동 소품과 옥의 작품도 다수. 제21회 히라쿠시 덴쿠 상 수상. 헤이조 천도 1300년 기념제의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센토'를 제작. 2021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불상 예찬'(2015년), '고전 조각 기법 대전'(2021년), '부처님의 이력서'(2020년) 등

**【문화재】**



**야마다 오사무(나라현립대학 교수)**

1973년 군마현 출생. 와세다대학 졸업. 도쿄예술대학대학원 미술연구과 수료 후, 제작 회사와 인쇄 회사에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3D 디지털화 사업, 영상 및 VR 콘텐츠 제작에 종사. 2009년부터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문화재보존학 전공. 보존복원조각연구실에 근무하며 국보 등 불상의 3D 데이터를 취득하여 보존 복원 및 조각에 관한 교육 연구를 진행. 도쿄예술대학 특임교수, 나라현립대학 지역창조연구센터 특임교수를 거쳐 2024년부터 현직. 주로 나라의 문화와 문화재를 테마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활용 방법에 대해 연구. 또, 나라 역사예술 문화마을과 나라 현립 미술관 등의 전시에도 협력하고 있다.

~경력~

<주요 저서 등>

'고전 조각 기법 대전' 공저(2021년), '도다이진 신 연구 I 도다이진의 미술과 고고' 공저(2016년) 등

**【관광】**



**야마다 게이이치로(JTIC.SWISS 대표,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1965년 미에현 출생. '세계 최고의 관광 노하우를 각지에 보급하는 권위자'로서 내각부, 국토교통성(관광청), 농림수산성이 인정(2005년)하는 관광 권위자. 스위스 체르마트와 발레 주 정부 등의 관광국 일본 및 아시아 마케팅 담당 외에, JTIC.SWISS(일본어 인포메이션 센터: 1992년 설립) 대표, 일본 에코투어리즘협회 이사(2004년)를 역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환경 보전과 이활용을 추진해 온 환경 카운슬러(환경성 1996년 사업자 부문, 2003년 시민 부문 등록)이기도 하며, 지역력 창출 어드바이저(2010년 총무성), 지역 활성화 전도사(2015년 내각부 관방), 쿨 재팬 지역 프로듀서(2016년 내각부 관방)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

**【국제 정치】**



**이종원(와세다대학 명예교수, 릿쿄대학 명예교수)**

한국 출생.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수료(법학 박사). 국제정치학과 동아시아 국제관계론이 전문. 도호쿠대학 법학부 조교수, 릿쿄대학 법학부 교수, 와세다대학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를 역임. 그 사이 프린스턴대학 방문학자, 아사히신문 아시아 네트워크 객원연구원, 베이징대학 초빙 외국인 교수 등.

<주요 저서 등>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관계'(1996년,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미국 역사가협회 해외국어 저작상 등을 수상), '국제 정치로 보는 동아시아 공동체'(2012년), '동아시아 화해의 길'(2016년), '전후 한일 관계사'(2017년)

**【국제 교류】**



**라나싱하 니르말라(나라현립대학 준교수)**

스리랑카 출신. 박사(관광학). 릿쿄대학 관광학 박사 후기 과정 수료. 도쿄외국어대학 비상근 강사 등을 거쳐 2017년도부터 나라현립대학에서 근무. 관광학, 남아시아 연구 등 주로 관광과 지속 가능성에 착안한 연구가 전문.

<주요 저서 등>

주요 업적으로서 '스리랑카의 개발과 사회학 연구 동향', '사회과학' 특집 아시아 Development 개념의 비교사회학 연구, 와세다대학 첨단사회과학연구소, 2023년; '식도락 여행의 향토 음식 스토리화: 스리랑카 힐오야에서의 공작야자 관련 체험을 중심으로' 구보타 사토루·오카이 다카유키 편저, 향토 음식이 엮어내는 새로운 이야기: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후진샤, 2024년.

## ~'동아시아 서머스쿨' 참가자가 보내는 메시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가했습니다. 동아시아 서머스쿨에서는 일본에 와 있는 유학생이나 일본어학과 소속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고 강의와 일상 회화는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 외국어 능력에 자신이 없어도 문제없이 참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에 가기 전 국제 교류의 첫걸음으로서 이 서머스쿨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리하라 렌게(일본: 나라현립대학)】



제가 서머스쿨에 참가한 이유는 유학을 해 보고 싶었는데 그 첫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안감 때문에 긴장하기도 했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찰 체험에서는 나라현의 역사, 그리고 나라현과 일본의 장점을 다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머스쿨을 마치고 유학을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머스쿨에서 체험한 것, 일본과는 다른 습관, 문화, 역사, 그리고 세계에서 보는 일본을 잘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히가키 마이(일본:나라대학)】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 서머스쿨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이 13일 동안 저는 한중일의 역사와 정치, 전통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는 각국의 보도에는 사실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과 발표에서는 한중일의 불상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전에 없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서머스쿨이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13일 동안 힘들었지만, 아주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 친구가 된 것처럼 앞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노우에 미호(일본: 기오대학)】



이 서머스쿨을 통해 저는 아주 좋은 살아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살아 있는 지식이란 일문일답식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질문에 대해 전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서머스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시는 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 학습에 관한 토론의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멤버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어서 토론의 깊이도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살아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서머스쿨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다음 기의 수강생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아리카와 슈시(일본: 미야기대학)】



2주간에 걸친 서머스쿨은 저에게 가장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나라에 모여 문화와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고, 차이점 등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강의를 마치고 팀원들과 토론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강의 외에도 도다이지 시찰과 가정 방문 체험 등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 사람이 사는 집에는 처음 방문해 보았습니다. 일본어가 서투른 제 이야기를 모두가 친절하게 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며 교류하고 싶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리리(중국: 상하이사범대학)】



참가자 중심으로 기획된 동아시아 서머스쿨은 여러 사람과 사귀기 쉽고, 귀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활용법을 세워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강의를 들어 보십시오! 여기서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참가해 보십시오!

【김민환(한국: 동양대학교)】



눈 깜짝할 사이에 13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귀중한 강의를 듣고, 또 도다이지와 만요 문화관 등의 시찰 체험을 통해 나라의 역사를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고 놀러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날 때도 있었는데,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도와 주고 응원해 준 사람들 덕분에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은 저의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서머스쿨에 참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Tran Thi Thom(베트남: 시즈오카현립대학 유학생)】

